

## 공동관심사 나눔

### 1. 오늘 일정 안내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쁨의 친교를 나누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 새날청년회 배움마당 :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
- 교육위원회 : 오후 3시, 온라인(ZOOM)
- 전체여신도회 임원회의 : 오후 3시 30분, 온라인(ZOOM)
- 미래선교위원회 음악선교팀 국악 찬송가 가사 모집 : 5월 30일(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참고
- 들녘농산물 판매 : 현재 남은 수량 - 백미(60kg), 현미(8봉지), 참기름(1병), 들기름(7병), 들깻가루(6봉지), (문의: 이옥희 권사 010-4872-4821)

### 2. 이번 주 일정 안내 : 5월 3일(월)~5월 9일(일)

- 수요일영성기도회 : 5월 5일(수), 오후 8시, 온라인(ZOOM), 기도회 형식 : 렉시오디비나(거룩한 독서), 성서본문 : 요한복음서 14:18-31, 주제 : “약속”
- 교육부교역자 워크숍 : 5월 8일(토), 오전 10시, 어린이부실
- 이사팀 회의 : 5월 9일(일), 오후 1시, 온라인(ZOOM)
- 정기당회 : 5월 9일(일), 오후 2시, 온라인(ZOOM)
- 향린 강좌, 「성서와 신학」 : 홈페이지에 동영상 게시 (유튜브 검색, “성서와 신학”)
- 새창 인문공화국 : 『한국 평화학의 탐구』(서보혁),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온라인(ZOOM),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문의 : 유 건 010-5154-9202)
- 선교부 민중신학 공부모임 : 『갑과 그리핀의 과정신학-입문적 해설』,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
- 이번 주 성서일과 : 사도행전 10:44-48, 요한1서 5:1-6, 요한복음서 15:9-17

### 3. 이후 일정 안내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평화통일선교팀 : 5월 6일(목), 저녁 7시, 온라인(ZOOM)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페미니즘-퀴어선교팀 : 5월 8일(토), 저녁 8시, 온라인(ZOOM)
- 창립기념주일/축제 “굿바이 명동, 헬로우 광화문” : 5월 16일(일), 예배 중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 5월 18일(화), 오후 8시, 온라인(ZOOM)

### 4. 에큐메니칼 소식

- 남북철도잇기 한반도평화대행진 : 4월 27일(화)~7월 27일(화), 부산역-임진각
- 민중신학 아카데미 : “안병무의 민중신학과 알랭 바디우의 사건 철학과의 만남”, 5월 4일(화)~ 5월 25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강사 : 허석헌, 주관 :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 5. 감사한금

권명옥/홍성조(장례 잘 마침), 이현옥/이광종(손주 생일), 이유진/이회식(법사), 이은배(감사), 무지개예수(장소사용)

온라인헌금안내 : KEB 하나은행 024-22-02085-6 향린교회(입금 시 이름/목적 명기)

####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

5. 우리는 분단된 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활동한다.

#### 목 / 회 / 마 / 당

##### <한일교회(NCC-KNCC) 공동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온 인류를 경악케 했던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하는지 10년째 되는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희석하여 방류한다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도쿄 전력이 정화시설로 제시한 다핵종 제거 설비의 경우, 초기 설비결함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Tritium)와 탄소-14(C-14) 등의 핵종은 그대로 남은 채 방류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오염수를 정화한 후에도 탱크 저장수에 삼중수소 뿐 아니라 반감기가 1570만년이나 되는 요오드129등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2018년 8월에 공개되기도 했다.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능 핵종은 기준치 이하까지 제거하고 있다는 도쿄 전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타국의 핵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를 방출하고 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참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며, 특히 비참한 사고를 일으킨 핵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이와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중략)

한국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월성 핵발전소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테) 증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다량 검출되었지만 그 이유나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를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한수원은 진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영광 핵발전소 역시 건설 당시부터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으며, 실제 격납 건물 콘크리트에서 공극이 발견되기도 했다. 술한 길등 속에 건설된 경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오염 지하수가 여과 없이 바다로 배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국의 핵발전소 역시 방사능 물질 방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이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 및 국제사회와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현황과 실태, 먹거리 오염 위험성, 오염수 유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하나, 세계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어떤 나라도 핵폐기물 처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값싼 비용으로 쉬운 방법을 채택하려 하지 말고,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연대하자.

2021년 4월 29일  
일본기독교협의회/평화핵문제위원회/NCC/ 생명문화위원회